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최경석**

-
- | | |
|---|--------------------------------|
| I. 머리말 | III. 기존 학제적 생명윤리학에서 철학의 역할과 한계 |
| II. 생명윤리와 생명윤리학의 정체성 :
학제적 학문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 | IV.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역할과 과제 |
|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생명윤리학을 단지 윤리학의 한 분과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하면서, 생명윤리학을 응용윤리학으로 이해하였던 기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학제적 생명윤리학은 철학, 의학, 생물학, 법학 등과 같은 기존 분과학문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들과 지향점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 내에서 철학 또는 윤리학이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윤리적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과도한 기대이며, 철학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 및 논증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생명윤리적 개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윤리적 견해를 정당화하는 주장만을 펼치는 데 그쳤던 기존 생명윤리학의 연구방식이나 담론방식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히 유일한 하나의 규범윤리학 이론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는 생명윤리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해 철학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적 의사소통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또는 윤리적으로 참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하게 된 윤리적 믿음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철학은 생명윤리학적 담론에서 자주 논의되는 인간 존엄, 인간 생명의 존중 또는 신성성, 생명의 가치, 삶의 질, 인간 정체성 등과 같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색인어】 학제적 생명윤리학, 응용윤리학, 다원주의 사회, 이성적 불일치, 사회적 합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8A03034450).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hoiks@ewha.ac.kr

I. 머리말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생명윤리”라는 실천적 영역과 학문적 영역 모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낯선 용어는 아닐 만큼 대중적인지도 측면에서나 학문적 연구에서도 모두 큰 진전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한국생명윤리학회의 기여 또한 적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치는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를 위한 학문적 탐구가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또한 흡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생명윤리적 문제의 양상이 단순한 경험적 연구나 이론적 연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론과 실천의 복잡한 문제양상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과학 자체의 발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나아가 전통적인 가치 관념에 대한 의생명과학의 도전이란 측면까지 안고 있어 생명윤리적 문제는 단지 생명윤리학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 거대한 인간 지성의 문제로까지 확산 가능한 복잡성과 심오함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을 단순히 윤리학의 한 분과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서구에서 전개되었던 생명윤리학의 접근 방향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고, 특히 철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윤리학의 위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철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 즉 철학적 연구방법이 한국의 생명윤리학 발전에 기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한국의 생명윤리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생명윤리와 생명윤리학의 정체성 : 학제적 학문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

1.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의 한계

필자는 우선 “생명윤리”라는 용어가 다의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는 우선 윤리적 체계를 의미할 수 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 체계로서 이해된 생명윤리는 동물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전문적 윤리를 형성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최소한 생명을 대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을 전달한다. 분명 우리 사회가 동의하는 몇 가지 윤리 원칙들이나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다. 적어도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라는 규범은 이제 연구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규범으로 정착하였다. 한편 “생명윤리”는 생명윤리학이란 학문분야를 의미하기도 한다. 낙태, 안락사, 보조생식술, 장기이식,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신경과학이나 나노과학 등과 관련된 많은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이 존재하며,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학술적 탐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을 학제적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학제적 성격이 부각되기 이전에 한 때 생명윤리학은 철학 그 중에서도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이해된 바 있었다. 지금도 철학에서는 종종 “생명

1) 최경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17(1) : 245.

윤리학”을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자명하며, 이미 실패한 기획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응용윤리학”이란 기본 규범윤리이론을 생명윤리적 현상이나 쟁점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실질적으로 규범윤리학의 원리가 적용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하나의 해답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많은 생명윤리적 쟁점은 기존 규범윤리학 즉 근대 규범윤리이론의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일치되는 하나의 해답에 도달하기 어렵고, 이러한 규범윤리이론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규범윤리이론이 전제하여 온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마저 확장되거나 변경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이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생명윤리의 교재는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덕윤리, 자연법이론과 같은 규범윤리이론들을 소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이 개별적인 생명윤리적 논쟁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³⁾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학제적 생명윤리학이 굳이 철학의 한 분과로 이해된다면, “응용윤리학”보다는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으로 분류되고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 왜냐하면 생명윤리학은 구체적인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규범윤리이론의 원칙들을 구체적인 문제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즉 원칙들을 응용함으로써 해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기획이 성공적일 것이라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⁵⁾ 생명윤리학은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학이란 점에서 실천윤리학이라 불릴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주로 일반적인 윤리 규범과 가치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규범윤리학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실천윤리학으로서의 생명윤리학은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에 개입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범윤리학 이론이 제시해 왔던 규범들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재조명하고 때로는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2.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

생명윤리학이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생명윤리적 문제의 성격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bioethics”란 명칭이 만들어지고, 주로 의생명과학의 발달이 제기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만이 생명윤리학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자명하다. 이러한 생명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이후의 분과학문들의 발흥이 낳은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학문은 당연히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즉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한다. 학문 그 자체로 이해되던 철학이 근대 이후 자연과학,

2)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판단력, 법철학연구 2008 ; 11(1) : 73.

3) Callahan D,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2003 ; 46(4) : 496-507.

4) 학제적 생명윤리학은 철학이외의 전통적인 학문분과 안에 편제되어 해당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되기도 하는데, 법학에서는 통상 “생명윤리와 법”이란 분야에, 의학에서는 “의료윤리”나 “의료인문학”이란 분야에, 사회학에서는 “과학기술사회학”이란 분야로 편제되어 있다.

5) 응용윤리학의 기획에 대해서는 Caplan, A, "Can Applied Ethics Be Effective in Health Care and Should It Strive to Be?" Ethics 1983 ; 93 : 314 참조.

실험심리학, 사회과학 등이 철학이란 울타리로부터 벗어났으며, 경험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엄청난 분과학문의 성장과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식 탐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접하는 문제현상은 많은 경우 학문탐구의 여러 영역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의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더 이상 생명윤리적 문제들은 철학, 법학, 의학, 사회학의 고유 영역이 아니며, 철학, 법학, 의학, 생명과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여러 분과학문들 전반에 걸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학문 통합적 문제들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의 시각과 방법론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지 여러 학문의 시각과 방법론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명윤리학이 진정한 학제적 학문으로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문 협동적”, “학문 통합적” 또는 “개별 학문 사이를 넘나드는” 연구 작업을 필요로 한다.⁶⁾ 예를 들어, 연명 의료의 유보나 중단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 생명 존중 및 자율성 존중 등과 같은 개념적 문제, 살인죄 성립 여부, 사망단계 진입의 의학적 기준, 생명연장기술의 의학적 유용성, 고령화 시대의 생의 말기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의료보험의 급여 항목 확대 여부,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용 증가의 문제,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 말기환자의 통증치료에 대한 의료혜택의 문제, 죽음에

대한 교육의 문제 등을 야기한다.

이울러 학제적 생명윤리학은 기존 분과학문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들과 지향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기도 한다. 철학에서는 인간 존엄성이나 인간 생명의 존중에 대한 어떤 엄밀한 논증도 없었던 점에 대한 철학적 반성, 법학에서는 윤리와 법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 의학과 생명과학에서는 생명연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해 왔던 기존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 등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을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고, 어느 누구도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되는 생명윤리학 안에서도 많은 일반인들과 철학 이외의 학문 분야 학자들은 철학이 기본적으로 윤리적 쟁점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철학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였던가? 그리고 과연 부응할 수 있거나 했던 것인가?

III. 기존 학제적 생명윤리학에서 철학의 역할과 한계

1. 과도한 기대와 회의론

일반인들은 분명 생명의 문제에 대해 철학이 나름 명확한 대답 즉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여타 학문의 학자들 역시 철학에 문외한일수록 유사한 기대

6) 흔히 “interdisciplinary”는 “학제적”으로 번역하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도 같은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multidisciplinary”와 “interdisciplinary”의 구분을 위해서는 전자를 “다수 학문적” 또는 “학문 병렬적”이라 번역하고, 후자를 “학문 협동적”, “학문 통합적” 또는 “학문 사이를 넘나드는”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전자와 구별되는 후자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학문 협동적”, “학문 통합적” 또는 “학문 사이를 넘나드는”이란 의미를 담아 “학제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최경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243. 각주3 참조.

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철학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가 철학의 본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평가한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당연한 상식이나 사고의 전제를 의심해 보는 반성적 활동을 수행해 왔다. 철학적 논쟁들 중에는 수천 년에 걸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다. 그러나 철학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개념들을 분석하고, 개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개념을 재정의하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이 철학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철학은 몇 가지 확고한 논증들을 축적시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과 상이한 독트린들을 축적해 오기도 했다.

윤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규범윤리학에는 의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칸트의 의무론과 결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공리주의뿐만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변형이론들이 존재한다.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메타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윤리학의 기초 개념인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이란 가치 대립의 짝에서 서로 다른 쪽에 서로 다른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이 옳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통해 좋음의 문제를 규정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좋음의 문제를 통해 옳음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행위를 중심으로 규범윤리학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성품의 문제를 윤리학의 핵심에 두고 있는 덕윤리와는 크게 구별된다. 또한 자연법이론은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를 근거로 윤리의 문제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윤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그리고 가장 올바른 유일한 규범윤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연법이론을 제외하고는 이들 규범이론들이 그 이론을 따를 경우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해 동일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연법이론은 사물의 본성이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은 선이고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해를 지니고 있어 적어도 사물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만큼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동일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여타의 규범이론은 원리적인 수준의 규범만을 제시하고 있어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동일한 구체적인 해답이 제시될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원리에 따르더라도 행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리주의자 안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칸트의 이론에 입각하여 사고를 전개한다하더라도 보편화 가능성과 같은 정언명법의 내용을 유지하더라도 개별 사안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아 하나의 일치된 의견이 칸트주의자내에서도 반드시 도출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규범윤리학은 구체적인 해답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생명윤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기보다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의 사고방식의 틀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규범이론들 자체가 상이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윤리적 쟁점을 낳고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이견을 접하게 될 것임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할 만한 하나의 규범윤리학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서로 경쟁하는 규범윤리학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윤리적 해답을 윤리학자들에게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가능하게 한다.

만약 철학의 한 분과인 윤리학이 생명의 문제,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나름 명쾌한 해답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반성적 성찰이나 비판적 사고를 수

행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고자 해 왔던 철학의 정신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

2. 규범적 상대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동도덕

확실한 보편적 진리에 대한 기대가 철학이란 학문을 통해 실현되기 어렵다는 위의 논의로부터 우려되는 것은 도덕에 대한 규범적 상대주의의 확산이다. 윤리적 규범 체계를 전달하고 습득하고 체화하는 도덕 교과나 윤리 교과가 아닌 윤리학 교과는 철학 교과로서 윤리학사를 통해 축적된 상이한 이즘들과 윤리적 딜레마들을 다룬다. 따라서 윤리적 진리를 배우고자 하거나, 쟁점이 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얻거나 관련된 지식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윤리학 수업은 서로 다른 이견과 논증들을 접하게 해 주며 이러한 이견들이나 논증들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느 의견이 옳다고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윤리란 또는 도덕이란 상대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리고 이런 상대주의가 개인이나 문화마다 상이한 윤리 규범을 지니고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기술 상대주의(descriptive relativism)를 넘어서서 윤리나 도덕 그 자체가 상대적이라고 결론내리기 쉽다.

생명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생명윤리학 수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철학적 생명윤리학 수업은 다양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훑아가며, 서로 대립하는 논증들을 접하고 학생들이 어떤 논증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지 판단하게 할 뿐, 설득력 있는 논증이나 입장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는 어렵다. 만약 어떤 논증이나 입

장이 옳다고 가르쳤다면 그것은 교수자가 지지하는 입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대학원 수업과 같이, 학생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학생과 교수자가 서로 갑론을박을 할 정도가 아니라면, 철학 교과에서 교수자 자신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올바른 철학 교육이 아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철학 교과의 특성은 윤리학이란 교과에도 적용되어, 보편적인 윤리규범의 존재에 대한 강조 없이 단순히 윤리적 딜레마만을 다루는 윤리학 수업은 학생들을 오히려 규범적 상대주의로 인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⁷⁾

그러나 필자는 규범적 상대주의가 올바른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거짓 말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정직해라’, ‘살인하지 마라’, ‘해를 입히지 말라’와 같은 도덕 규범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논쟁을 중심으로 상이한 이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교육하는 철학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들이 존재함을 놓치게 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도덕적 딜레마들이다. 그리고 생명윤리적 쟁점들은 이러한 딜레마와 유사한 문제들의 집대성이라 할 정도로 상이한 이견을 보이는 쟁점들이다. 그러나 쟁점들에 가려진 채 엄연히 존재하는 윤리 규범들이 윤리학 수업에서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거의 모든 사회와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유되는 도덕적 원칙들은 존재한다. 비록 이 원칙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또는 원칙들이 상충할 때 어떤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지라도 위에서 열거했던 도덕

7) 이런 점에서 윤리적 규범을 전달하고, 체화하는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의사들이나 미래 의사들이란 점 때문에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연구를 포함하여 윤리학적인 학문적 탐구가 교과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 탐구에 주로 관심을 지닌 윤리학자보다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동료 또는 선배 의사들이 최적의 교과목 교수자라고 생각한다.

원칙들이나 규범들과 모순되는 것을 윤리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회나 합리적인 인간은 없다.

공유되는 도덕 규범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논리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문화나 개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서로 다른 규범적 윤리이론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도덕 규범들은 존재한다. 롤즈(John Rawls)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런 규범들은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보이는 규범들이다.⁸⁾

이런 점에서 생명윤리의 영역뿐만 아니라 윤리학의 영역에서 기존의 행위 중심 윤리이론이나 품성 중심 윤리이론이 아니라 공유된 도덕 규범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탐 비쵸프(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칠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공동도덕(common morality) 이론은 새로운 규범윤리학 이론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도덕을 규범, 도덕적 이상, 올바른 성품 등으로 구성된 체계로 보는 견해는 버나드 거트(Bernard Gert)에게서도 발견된다.⁹⁾ 비쵸프와 칠드리스는 자신들이 언급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지니고 있는, 원칙으로서의 문제점 때문에 클라우저(Clouser)와 거트 등으로부터 “원칙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¹⁰⁾ 비판의 내용은 “원칙”답지 않은 원칙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비쵸프와 칠드리스가 지지하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론을 고려해 볼 때,¹¹⁾ 원칙답지 않은 원칙은 하향식 모델 즉 원칙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상

향식 모델 즉 사례 중심주의의 문제점도 극복하는 장점을 지닐 수 있다.

비쵸프와 칠드리스는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구체화(specification)와 균형 잡기(balancing)라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네 가지 원칙들의 무리가 생명윤리학의 원칙들이며, 이들 원칙들이 사례에서 구체화되고 원칙들 사이의 균형 잡기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¹²⁾ 필자 역시 생명윤리학의 방법론 가운데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지지한다. 반성적 평형이란 방법론은 이론의 정당화 방법으로서 롤즈로부터 시작되어, 노먼 다니엘즈(Norman Daniels)에 의해 좁은 반성적 평형과 넓은 반성적 평형이란 보다 구체화된 구분으로 발전되었다. 비쵸프와 칠드리스는 첫째, 이 방법론을 생명윤리학의 방법론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으며, 둘째,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서 ‘구체화’와 ‘균형 잡기’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롤즈와 다니엘즈는 정당화이론과 관련하여 정합론적 입장에서 서서 어떠한 믿음도 정합성을 위한 수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이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¹³⁾ 그러나 비쵸프와 칠드리스는 정합성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정합론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숙고된 판단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¹⁴⁾

8)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385-395.
 9) Gert B. Morality: Its Nature and Just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13.
 10) Beauchamp TL, &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6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371-372.
 11) Beauchamp TL, &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381.
 12) Beauchamp TL, &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16-24.
 13) 최경석은 박사학위논문 Moral Reasoning and Justification in Medical Ethics에서 정합론적 입장에서 수정이 진행되는 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합성, 포괄성, 잘못된 믿음의 수, 수정의 최소화 및 정합성과 포괄성의 극대화, 수정의 효율성 등이 바로 이러한 기준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Choi K, Moral Reasoning and Justification in Medical Ethics(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2003 : 168-170.
 14) 이런 점에서 롤즈와 다니엘즈의 반성적 평형은 정합론인 반면, 비쵸프와 칠드리스의 반성적 평형은 토대론적이다. Beauchamp TL, &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385.

비침과 쿨드리스의 공동도덕 이론에는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유일한 규범윤리학이 부재하는 가운데 여러 규범윤리학 이론들에 호소하며 전개되는 윤리적 담론의 결론은 결국 집단적으로는 공동도덕 이론에 의해 도달한 결론과 유사할 것이라고 본다.¹⁵⁾

예를 들어, 인간대상연구 중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의사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옳은지, 연구자로서의 진리탐구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칸트주의자들은 등가상태와 같은 개념에 호소하며 두 의무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며, 공리주의자들은 무작위 이론과 같은 공리주의적 이론에 호소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다.¹⁶⁾ 그러나 공동도덕 지지자들은 칸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의무를 포함하면서도 공리주의적 가치를 도외시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하는 가치들 및 관련 규범들을 구체화하면서 이들 가치들과 규범들이 지닌 비중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칸트주의자와 공리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하나의 의견에 도달하였을 것과 유사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범윤리학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규범윤리학적 입장이 가장 올바른 이론이라 여기며 이 이론에 입각하여 생명윤리적 개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윤리적 견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치는 데 그쳤던 기존 생명윤리학의 연구방식이나 담론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히 규범윤리학의 이론조차 유일한 하나의 이론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생

명윤리학의 정초를 위해 공동도덕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역할과 과제

1. 다원주의 사회에서 철학의 역할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동양적 가치관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개인의 권리나 자율성이 강조되고 아울러 다양한 인생관, 세계관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이동해 가고 있다. 서구사회는 이미 다원주의 사회를 체험하면서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함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 익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제 서서히 그리고 어떤 분야는 매우 급속하게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낙태나 연명치료중단 및 안락사의 논쟁에서뿐만 아니라 보조생식술, 예를 들어 대리모의 윤리적 허용가능성이나 법제화 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윤리적 의견 대립을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 가능해야 하는 생명윤리학이다. 기존의 생명윤리학은 특히 한국에서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논증자는 자신의 주장이 보편적인 주장이고, 윤리적 참이 존재한다면 윤리적 참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의 담론형태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잘못 이해된다면 규범적 상대주의로 오도할 수 있는 윤리적 이견의 난맥상만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15)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결론은 생명윤리학의 방법론 논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중심주의, 사례중심주의, 반성적 평형이란 세 가지 방법론의 경쟁에서도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결국 집단이 도달하는 방법론은 결과적으로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따르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16) 최경석. 무작위 임상시험의 윤리적·법적 문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8 ; 11(1) : 45-62.

했었을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한계와 단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명윤리학적 담론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러한 담론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철학적 탐구를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해야 하는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¹⁷⁾

일단 우리가 롤즈가 언급했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태도의 측면에서 이런 이성적 불일치에 대해 관용(toleration)의 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할 수 있다면, 기존의 윤리적 담론 방식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윤리적 이견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인지 확인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철학적 생명윤리학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논쟁들과 상이한 입장들은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올바른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주장들과 그와 관련된 상이한 이론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근 생명윤리학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생명윤리학이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생명윤리학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흥과 전개로 인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침과 켈드리스에 의해 공동도덕에 속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밀이 이해하는 자유의 존중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 원칙들 중 하나에 불과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현장에서는 다른 모든 원칙들보다 우위에 있는 원칙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을 낳기도 했고, 게다가 자율성에 대한 이상과 그 실현 차이의 괴리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자유의 원칙에 불과한 생명윤리 원칙으로 정착되게 되었다.¹⁸⁾

개인의 자유에 지나치게 무게감을 두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생명윤리학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한, 개인이 원하는 바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학은 그리고 필자가 주목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 생명윤리학 즉 온건한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무조건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¹⁹⁾ 온건한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지닌 칼라한은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학의 접근방법이 기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생명윤리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첨단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 다음 질문들은 개인들에게 그 기술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그리고 (1) 그 기술이 공동선과 충분히 양립가능하여 그것의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 (2) 만일 그 기술이 완전히 양립가능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회는 그 사회의 일부 시민들의

17) 여기서 필자는 새로운 철학적 탐구를 위해 철학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doing philosophy”의 방식을 다소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비단 한국 철학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본다. 즉 많은 경우 철학은 자신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제시해 왔지만, 이제 이러한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 철학은 그 주장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장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진리 추구와 담론의 사회적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8)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 ; 14(1) : 13-27.

19) “반응적 공동체주의”(responsive communitarianism)는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가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닌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authoritarian communitarianism)와 구별되는 자신의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Etzioni, A.,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vol 32, 2011, p.363 참조. 이런 점에서 반응적 공동체주의는 온건한 공동체주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별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목 아래에,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잠재적 해들을 종종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로 기술이 허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다.²⁰⁾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학은 비록 현재의 생명윤리적 담론의 난맥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부터 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외에 우리가 도의시해 왔던 어떤 가치들이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사회공동체의 가치가 상호 균형을 취해야 함을 알려 준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가 사회공동체의 가치보다 강조되었다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면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자주 목격될 수 있듯이 공동체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반응적 공동체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²¹⁾ 필자는 여기서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를 더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 가능한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정초를 위해 공동체주의적 생명

윤리학적 접근방식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학의 등장뿐만 아니라 최근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의 출현은 기존 논의방식에 대한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²²⁾ 그리고 이처럼 기존의 생명윤리학적 담론에 단순히 상이한 인생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상이한 윤리적 주장이 제시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생명윤리학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학과 같이 생명윤리적 담론방식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여기서는 강조하고자 한다.²³⁾

그런데 이러한 상이한 윤리적 입장이나 주장들이 하나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철학적 탐구를 필요로 한다.

2.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철학의 과제들

기존 철학이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윤리학적 쟁점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수용가능한 윤리적 믿음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롤즈가 주장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는 이성적 다원주의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²⁴⁾ 아울러 이러한 이성적 다원주의로 인해 어떤 윤리적 믿음의 주장자가 자신의 주장이 누구에게나 수용가능한 보편적인 윤리적 믿음이

20) Callahan D,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504.

21) Etzioni A,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2011 ; 32 : 315-326.

22) Baylis F, Kenny NP, and Sherwin S, A Relational Account of Public Health Ethics, Public Health Ethics, 2008 ;1(3) : 202 참조. 관계적 자율성에 대해서는 Mackenzie C & Stoljar N, edited,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Sherwin S, A Relational Approach to Autonomy in Health Care, Sherwin S and the Canadian Feminist Health Research Network, edited, The Politics of Woman's Health: Exploring Agency and Autonomy,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등이 있다.

23) 생명윤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은 지나치게 자율성을 강조해 왔으나,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개인선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적 쟁점을 새롭게 형성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유수정·최경석,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생명윤리 2013 ; 14(1) : 49-63 참조.

24)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36.

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롤즈가 언급한 판단의 부담²⁵⁾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수용가능하지 않은 믿음 들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성적인 사람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롤즈는 이성적 불일치라고 불렀다.²⁶⁾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철학은 이성적 불일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란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목표를 위해 철학적 방법론으로 생명윤리학에 접근하는 철학자에게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나열하며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정초를 위해서는 우선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다양한 의견대립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성적 불일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비록 롤즈가 판단의 부담을 통해 이성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실천 윤리학으로서의 생명윤리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이성적 불일치로 여기지 않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부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다른 의견을 윤리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근거를 제시할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기는 하다.

둘째, 집단적 의사소통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또는 윤리적으로 참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²⁷⁾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인식론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²⁸⁾ 따라서 진리 또는 윤리학의 경우에는 정당화된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들이 무엇이고 이들 기제들에 대한 평가가 철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 제도, 청문회, 토론회 등과 같은 집단적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인식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위 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포괄적인 믿음 체계나 문화에 기초한 윤리적 믿음들이 어떻게 상호 소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한 철학적 연구과제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트리스탐 엔겔하르트(H. Tristram Engelhardt)와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서로 다른 믿음체계들 사이의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믿음체계 내에서 윤리적 믿음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²⁹⁾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주장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믿음체계의 언어 그대로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체계라면 종교적 언어 그대로 아무런 번역 없이 서로 다른 믿음 체계와 경쟁할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필자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롤즈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사용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한 사회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경우 반드시 공적 이성이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³⁰⁾ 필자는 이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적어도 공공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

25)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56-57.

26)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55.

27) 여기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믿음”과 “윤리적으로 참인 믿음”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은 윤리적으로 참인 믿음의 존재를 부정하는 메타윤리학적 입장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28) 알빈 골드만(Alvin I. Goldman)은 예를 들어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사회적 관행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사회인식론을 전개하고 있다. Goldman AI. Knowledge in a So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103-130.

29) Kuczewski MG. The epistemology of communitarian bioethics : Traditions in the public debates, Theoretical Medicines 2001 ; 22 : 137.

30)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32 & 326-374.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 이성이 아니라 공적 이성에 의해 논의를 진행하고 논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크 커주스키(Mack G. Kuczewski)는 생명윤리의 역사에서 주목하였던 여러 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종교적이거나 독특한 문화체계에 근거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전형적인 사례나 사례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규범들에 대한 호소만으로도 충분히 대중과 담론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³¹⁾ 이런 점에서 필자는 종교적인 언어는 가능한 한 세속적인 언어와 논증으로 변환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변환이 대중적인 의사소통과 담론에 있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담론의 핵심은 세계관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해 공유된 믿음에 근거한 공유점의 확대 즉 새롭게 공유된 믿음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하게 된 윤리적 믿음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윤리적 측면의 연구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가치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논쟁, 윤리적 참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 윤리적 정당화의 지위에 대한 논의 등 합의가 지닌 특성이 무엇이고, 합의가 단순한 이견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인 협상이 아닌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지위를 지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합의가 법과 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합의가 도달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성적 불일치에 직면하여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방법은 어쩌면 창의성을 요구하는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필자는 사회적 합

의란 이미 공유된 믿음을 근거로 새로운 공유된 믿음을 찾아가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는 관용이라는 윤리적 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관용이란 태도를 가지고 사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려 해도 언제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 사안을 좀 더 세분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³²⁾ 낙태 문제 전반에 대해,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문제 전반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낙태 중에서도 여러 사안별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면,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때보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이 이견을 좁히는 것이 현 단계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출산과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제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간접적인 해결책 모색과 관련해서는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철학적 연구과제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윤리적 믿음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주장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해 보는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과제들이다.

위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과는 별도로 철학은 생명윤리학적 담론에서 논의되는 기초적인 개념

31) Kuczewski MG, The epistemology of communitarian bioethics, 142-144.

32) 최경석. 생명윤리에서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15(4) : 160.

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 생명의 신성성이라든가, 생명의 가치라든가, 삶의 질, 인간의 정체성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해 철학은 누구나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논증을 충분히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런 측면은 생명윤리학이 의생명과학기술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 그것도 사회에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에 주로 천착해 왔던 서구의 연구 흐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철학은 그동안 도의 시해왔던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³³⁾ 생명윤리적 쟁점들은 생명윤리학자들 특히 철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생명윤리학자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 과제들은 생명철학이나 생명사상이 21세기의 생명윤리적 쟁점들과 관련을 맺고 또 다시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될 것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V. 맺음말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지난 15년간 한국 사회의 생명윤리적 담론이 진일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짧은 시간 동안 일반 대중에게나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때로는 신속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중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형성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고도 성숙한 논의 아젠다를 수립했다거나 가능한 아젠다를 진행시킬 만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최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학회와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는 있지만 주로

인간대상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논의가 초점을 이루었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우선 기성 학자들이 한국 생명윤리학의 담론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필자는 아직은 한국 사회의 생명윤리적 담론이 다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종교계는 종교계 나름대로 생명가치의 확립과 생명문화의 확립과 확산을 위해 여전히 노력해야 할 바가 많다고 판단한다. 과학계를 비롯한 연구현장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전문적 윤리의 측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보다 현실성이 있고 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지침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과 함께 학계, 특히 생명윤리학과 철학계에서는 앞선 언급했던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주제들이 단순히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생명윤리적 현상과 맞닿아 있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인 양질의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철학자들의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의 현안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 전개뿐만 아니라 기존 분과 학문의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의료지시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낙태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인간 생명 존중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마이클 샌델(김선옥 외 번역).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철학과 현실사, 2008 : 242-244.

[Abstract]

**Bioethics and Philosophy :
Philosophical Conflicts and Philosophy's Tasks for a New Bioethics ***

Choi, Kyung-Suk**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iculties of the project which considered bioethics as an “applied ethics” as well as on the identity of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rather than as a division of ethics. Further this paper emphasizes that bioethics should deal with fundamental questions about some basic concepts and orientations presupposed in a discipline relevant to bioethics, such as philosophy, medicine, biology and jurisprudence. For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it is an improper expectation that philosophy will provide the definite ethical answers to bioethical issues. Philosophy plays a role to provide various perspectives, ways of thinking, and argume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for a social consensus. The ways of discourse in which philosophers argue their argument for their own ethical opinion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should be changed because we need bioethics that may work in a pluralistic society where there is not the only right theory of normative ethics. Philosophy should deal with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reaching a social consensus for a new bioethics working in a pluralistic society. Philosophy should inquiry criteria to discern reasonable disagreement from other disagreement, methodologies to make our group communication and discourse reach ethically true or justified beliefs, and philosophical status of such beliefs. In addition, philosophy has a task to study basic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respect for human life, the value of life, the quality of life, human identity, etc.,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bioethical discourses.

Key words: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applied ethics, pluralistic society, reasonable disagreement, social consensus.

원고투고일 : 2013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8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B8A03034450).

** Bioethics Policy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